



유진오 우리회 영남지회장
(주)유진구조이엔씨 대표이사

영남지회의 힘과 자랑

부산, 울산, 경남에서 활동하는 건축구조기술사 지회의 첫 창립을 1998년 3월 구본울, 김광호, 한진원, 우종열, 유진오 5명이 조출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승용차 1대면 다 탈수 있는 인원이었습니다.

초대 회장과 2대 회장을 본 구조엔지니어링 구본울 회장이 역임하면서 지금의 영남지회가 되도록 많은 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3대, 4대 회장에는 DSK엔지니어링 김광호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5대 오에스엔지니어링 한진원 회장이 3년간 역임하면서 11년간 세분의 역대 회장님의 봉사로 영남지회를 단단히 초석으로 다졌습니다. 이어 6대 힐엔지니어링 우종열 회장, 7대 성신구조 ENC 김경민 회장 때에는 대외적 활동을 하면서 영남지회의 위상을 강화시켰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유진구조이엔씨 유진오회장이 역대 회장님의 잘 다져진 초석위에서 신규회원 확충, 대외역량강화, 강한 단합력을 슬로건으로 2년간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규회원 4명 입회와 내년 입회 1명으로 총 3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위원회로는 재정, 홍보, 교육, 기술, 골프, 울산지역, 경남지역위원회가 있으며 울산지역위원장은 하이콘ENG의 신상훈 위원장과 경남지역위원장은 S&S구조기술사사무소 조용부 위원장이 맡아 영남지회 특성상 지역적인 회의 안건, 최소설계비, 불량거래처의 공유를 통해 지역간 경쟁을 완화하며 불량업체를 공유하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회는 영남지회에서 가장 힘들게 3년간 봉사하는 위원회로 구조법인 민택의 박성모 위원장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회의 역점사업은 다이어리 사업으로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스폰서를 확보하여 2000부의 지회 다이어리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회원사, 지역설계사, 건설사, 공무원과 학교에 홍보용으로 배포를 해왔으며 다이어리 수익금은 영남지회의 대외 활동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외활동으로는 춘계 산학골프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국 내진보강 경진대회 후원, 건축학회 구조분과위원회 합동세미나 후원, 지역 대학 졸업작품전 후원 등에 대외 사업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활동적인 위원회는 골프위원회로 동인구조기술 변대근 회장과 하이콘ENG 신상훈 총무가 싱글골퍼로 장기 집권(?)하면서 19명 회원에 4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석 귀성열차에매 보다 빠르게 참가통보를 알리는 등 가히 불이 붙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점수제로 회원을 참석시키며 재미를 더하는 게임방식으로 아마 구조기술사 만이 할 수 있는 게임방법을 통하여 즐겁게 하루를 즐기며 회원 간 단합에 힘쓰는 위원회입니다.

올해 영남지회 활동을 정리해보면 4명의 신입회원이 입회하였으며 이 회원들이 지회에서 잘 자리잡도록 기존회원들이 멘토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1명도 탈회 없이 잘 참석하여 기존회원들과 잘 융화하고 있으며, 2명은 올해부터 골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2명도 내년에 가입의사를 밝혔습니다.

4월 춘계산학골프대회 및 간담회는 영남지회 지속사업으로 10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회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교수님과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합니다. 지도교수, 심의위원, 평가위원 자격인 항상 어려운 관계에서 이제는 자주보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산학 간 공동기술개발로 실질적인 동반자로 가는 모습으로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영남지회와 건축학회 구조분과위원회가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10월 8일 토지주택공사,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영남지회 3개단체가 노후주택 안정성확보를 위한 HOME DOCTOR GROUP 운영에 협약을 하였습니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정부에서 관리하는 노후주택에 대하여 점검, 자문, 대응책 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봉사에 앞장서고 있다는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약은 영남지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협약으로 앞으로 토지주택공사에서 이를 평가한 후 전국 실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목표는 지역봉사에 자연스럽게 진입하면서 앞으로 위험건물에 대한 평가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으로 본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는 한중일 합동 내진보강기술세미나로 한중일 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영남지회 소속 회원 및 임직원이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저녁에 3개국 언어로 성대히 만찬을 즐겼습니다.

12월 송년회는 31명 전 회원중 23명이 참석하여 역대 참석인원 중 최대로 참석하여 즐거운 송년회를 보냈습니다.

영남지회의 자랑으로 회원사 경조사 시 회원사 각각 화환, 조화는 물론 축의, 조의금을 내고 있으며, 특히 멀리 창원, 울산에서 참석하여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남 지회 회원사 조화가 20여개 복도 옆에 도열해 있는 모습은 영남지회의 지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남지회에는 국민차가 제네시스(?)정도이고 업역이 되신 분들은 거의 독일차 이상입니다.

중앙에서 고생하면서 사업하시는 영남지역 출신 회원님들, 고향으로 내려오세요. 이 모든 게 현실입니다.

영남지회 회원은 대학의 출신이나 전 근무지 출신 등으로 이야기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영남지회는 영남지회입니다. 초대회원부터 신입회원까지 서로를 존중하며 기술적 자문 및 후배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며 같이 공생하는 지회입니다.

회장단 구성 및 선출은 본회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직전 회장, 현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체제로, 사업의 연속성과 지회 운영상 현 회장은 직전 회장의 자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며 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회원추인으로 회장에 선임되는 조직구성이며 부회장은 2년간 봉사자가 아니고 6년간 봉사하는 체제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잇기 위해 역대 사업과 현 사업의 중첩에 대한 조율, 사업의 확대와 축소 등 긴밀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회장의 독단을 최대한 줄이고 전통을 중시하며 회원의 화합을 최우선시하는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전 역대 회장과 확대 회장단 회합을 하여서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역대 회장님에 대한 예우는 어떤 사회 단체보다 나은 예우를 하고 있으며 역대 회장님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회의 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영남지회의 힘과 자랑은-

바다와 산 그리고 강이 있는 영남지회는 마음의 여유와 풍요가 있습니다. .

영남지역이 가지고 있는 울산항, 부산항, 마산항 등은 외부의 힘에 대한 많은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지역, 내 기술, 내 출신이 아니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넓은 대양의 기질이 영남의 힘과 자랑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회원 간의 우애가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독자적인 기술로 사업하는 여러 선배님이 계십니다. 아직 입회하지 않은 기술사님은 내년에는 꼭 가입하셔서 같이 즐거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